

글로벌화를 통한 건설산업 재도약의 희망이 보인다

이재완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장
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 회장



지난달 24일, 우리나라 건설사가 23조원 규모의 사우디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MOU를 체결했다는 낭보를 들었다. 이튿날에는 도화엔지니어링의 광영필 회장이 건설기술인의 날 설립 후 최초로 금탑산업훈장을 받는 것을 보았다. 건설 기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큰 기쁨을 갖고 주말을 보내면서 ‘글로벌화를 통해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이룰 수가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몇 자 적어본다.

최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도 건설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서 업계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 대안을 찾고 있다. 강호인 장관은 이란 경제 제재 해제 및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에 대비한 해외건설 활성화 방안 마련과 함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설 엔지니어링의 글로벌화를 위한 해결책을 찾고자 엔지니어링업계 대표들과 심층 간담회를 갖는 등 두 팔을 걷어붙였다. 특히 엔지니어링협회 회원사의 60%가 건설 엔지니어링업체이고 고부가가치 융합 엔지니어링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IT 등 타 분야 엔지니어링과의 협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필자가 건설 계약의 글로벌 기준을 제정하고 있는 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FIDIC) 회장의 위치에 있어서 그런지 특별히 간담회에 초청받아서 장관과 격의 없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부 장관에게 필자는 “월드컵 경기에 출전하는 한국 대표단이 국제 경기 룰을 따르지 않고 동네 축

구 룰을 가지고 연습해서는 국제 경기에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없고 승리를 거두기도 불가능하다. 왜 우리나라엔 ‘백텔’ 같은 글로벌 업체가 없냐고 묻지만 말고, 이젠 실제 작품을 만들어내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즉, 백텔 같은 업체가 태어날 수 없도록 하고 태어나도 성장할 수 없는 미숙아가 되는 환경이 되지 않도록 국내 각종 법과 제도의 칸막이식 규제를 없애고, 글로벌화된 국제 룰 아래 국내 엔지니어링업체와 건설업체들이 국내 시장에서 연습하고 경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이었다. 최근 국토부의 활발한 움직임 보면 금년 중에 우선 국내에서도 글로벌 룰을 가지고 시범 경기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FIDIC의 회장으로서 필자는 엔지니어링을 포함한 우리 건설산업의 글로벌화에 관심이 많다. FIDIC에서는 엔지니어링 관련 계약 조건뿐 아니라 국제 건설 관련 각종 계약 조건을 만들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필자는 FIDIC 차기 회장, 그리고 회장 자격으로 AIIB 진리천 총재와도 두 차례 면담을 했으며, AIIB도 공식적으로 FIDIC의 계약 조건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국내 건설산업이 글로벌화를 통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 우수한 인재들을 모으고, 글로벌 룰을 가지고 이들을 훈련시켜 세계 무대로 나가 멋진 경기를 치르고 승전고를 울리게 될 날을 기대해 본다. CERIK